

은행권 금리 인상...가계대출 더 조인다

KB, 오늘부터 주담대·전세대 0.2%p ↑ 신한·우리도 대출금리 추가 인상 잇따라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려는 금융당국의 압박 등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혼합형(고정) 금리를 0.2%포인트(p)씩 모두 올리기 시작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 12일에 이어 오는 24일 가계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를 0.20%p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영업점에 송부했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는 0.15%p 인상을 한다. 우리은행은 또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 2년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도 0.15%p 높이기 시작했다. 신한은행도 22일부터 은행채 3년·5

년물 기준 금리를 0.05%p 올리기 시작했다. 해당 대출 상품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다. KB·신한·우리은행 모두 이달 초순 전후로 한 차례 대출금리를 올렸으나 다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는 셈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12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소폭 인상한 바 있다. KB국민은행도 3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3%p, 11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p 높였고, 신한은행 역시 15일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대출 상품 금리를 0.05%p 인상했다. /연합뉴스

이처럼 은행들이 계속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것은,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과 맞물린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하며 은행권에 적극적인 관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현재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을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GICON-구름 손잡았다

광주지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인력 확보 기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GICON)은 17일 “전남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및 에듀테크 기업인 ㈜구름과 함께 지역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상호 연계 협력을 통해 전라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 및 지역 청년 정주를 위한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지역특화맞춤형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호협력 ▲지역사회 취·창업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협력 ▲상호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및 행사의 협

조 등이다. GICON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을 통해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구름과 함께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하고 올해 인공지능과 IoT분야 교육을 통해 10명 이상 수료했으며 이후 협약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우리 진흥원은 지역 내의 뿌리개발자를 양성하고, 이들을 지역 내에 흡수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개발자 육성에 더욱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금시장 혁신 ‘한국골드포럼’ 개최

한국 금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오는 25일 아미드호텔 서울에서 ‘한국골드포럼 2024 (Korea Gold Forum 2024)’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한국골드위원회와 서울시립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하 월곡재단)과 단협산하 주얼리세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세제특위)가 함께 주관하며,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와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에서 후원한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금 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산·학·연이 한 뜻을 모아 마련한 자리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한국골드포럼 2024’는 1부 주제 발표와 2부 토크쇼로 구성됐다. /임채만기자



KT, ‘콤보인터넷’ 자사 네트워크 도입 KT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콤보 인터넷’ 기술을 자사 네트워크에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직원이 네트워크에 도입하는 콤보 인터넷 기술을 점검하는 모습. <KT 제공>

중진공, ‘광주 무인 저속특장차’ 공동사업전환 설명회

특구사업 후속 지원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17일 “2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인 ‘광주 무인 저속특장차’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동사업전환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시,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중진공 광주지역본부 및 특구사업자 10개사가 참여했다. 사업설명회는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및 성과공유, 공동사업전환 사업설명, 특구사업자 애로사항 청취 및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구사업 후속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전담기관으로, 사업이 종료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을 통해 얻어진 기술적 가치가 사장되지 않고, 국내를 뛰어넘어 글로벌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후속연계 지원에 힘쓰고 있다.

중진공 광주지역본부는 ‘광주 무인 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사업화 제고를 위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혁신기관들과 공동사업전환을 기획하고, 약 5년에 걸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사업전환은 대기업 공공망 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 연속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특구법 지정사업, 국가전략기술 등 6개 유형을 신사업분야로 지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생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특구사업자 참여기업인 최중석(주)화인특장 대표이사는 “공동사업전환 추진을 통해 특구사업자간 협업 활성화와 특구 실증 결과물들의 사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우주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장은 “특구사업자 간 공동사업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후속지원은 물론, 산업부의 소부장특화단지 및 연계해 광주시 미래차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로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솔기자

광주·전남 금속노조 총파업 철회

사측과 중앙 교섭 의견접근

광주·전남 금속노동조합이 18일 예고했던 2차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17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 열린 사측과의 중앙 교섭에서 본부노조가 의견접근 안을 마련하면서 2차 총파업대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처우 개선·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1차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광주·전남지부도 8개 사업장의 조합원 1천3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가운데 기아차 광주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 2곳도 파업에 동참해 기아차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3차까지 예정했던 총파업대회를 모두 취소했다”며 “개별적으로 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조합원들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와 사측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마련한 의견접근 안에는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노조 가입이 유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이러한 내용의 의견접근 안에 대해 조만간 총회를 소집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정은솔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